

“산·학·연 집단지성 활용 4차혁명 선도기술 개발해야”

전기진흥회, 11·12일 전기산업 R&D 워크숍
전기분야 R&D 현주소 분석·미래방향 모색

“고부가가치 기술제품을 제외하면 결국 최종 수요를 확보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원천기술 개발이 부족하고 중국산 저가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송변전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기술로드맵을 계기로 전력 에너지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을 적극 대응해야 한다.”

11~12일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7 전기산업 R&D 워크숍'에서 쏟아진 말이다.

▶관련기사 3편

이번 워크숍은 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가 전기산업의 R&D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 연구개발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약 50명의 전기계 산·학·연 R&D 전문가들은 업계의 기술적 현안과 미래 R&D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올 들어 전기산업 수출은 국제유가 회복세가 더디면서 미주·중동지역의 전력용 기기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동기, 교류발전기 등 산업용 기기도 아시아, 미주, 유럽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반등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진흥회에 따르면, 1분기 전

기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9% 축소된 28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입도 28억3900만달러에서 26억6100만달러로 6.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2015년 1월 이후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수출이 올들어 매월 10% 이상 성장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기산업 수출은 소외감이 느껴질 만큼 부진한 모습이다.

워크숍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기산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한 R&D 청사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전 기술기획처 하동혁 기술전략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한전은 전력에너지 융합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주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디지털 전환과 집중,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국민편익과 에코시스템(ecosystem) 확보 등 3개 부문별 9대 전략과제에 2020년까지 76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전기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성진 동아대 교수는 “국내외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일관되고 전략적인 송변전설비 기자재 기술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산·학·연·수요처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R&D의 상용화 및 로드맵 도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전기산업진흥회 송양희 부회장은 “올해 처음 열린 전기산업 R&D 워크숍을 앞으로 '전기산업 미래발전 R&D포럼'으로 확대, 육성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송세준 기자 21ssj@

117억 규모 전기차 급속충전기 260기 구축사업 발주

환경공단, 15~17일 입찰...접근성 높은 마트·패스트푸드점·휴게소에 집중

총 260기 규모(약 117억원)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사업이 발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구축하는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구매·설치 사업 입찰을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찰업체는 계약 후 120일 이내 급속충전기 납품과 설치를 마쳐야 하고, 2년간 충전기 관련 하자 책임을 지야 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충전기는 상업시설 140기, 고속도로 120기 등 260기다. 금액으로는 각각 약 63억원, 54억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시설을 갖춘 급속충전기 제조업체,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등이 다. 단 부담이행방식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이행)능력, 납품 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평가와 기술(규격)부문, 사업관리,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 등 정성평가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보급하는 급속충전기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접근성이 높고 충전 대기시간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집중된다. 상업시설에 구축하는 140기 중 대부분은 롯데마트, 맥도널드 전국 지점에 설치한다.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120기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 경북, 대구, 전남, 전북, 경남, 부산 등 전국 휴게소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급속충전기 3000기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번 사업도 그 중 하나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로 중·장거리를 운행할 때 긴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기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보급한 급속충전기는 총 1320기로 환경부가 671기, 지자체와 민간이 649기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60기를 구축하고, 10월까지 25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설치물량 중 일부는 개인·법인으로부터 설치부지를 신청받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위대용 기자 wee@



밤이면 쏟아지는 은하수 '서울로 7017' 첫선

'서울로 7017'이 20일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서울로 7017은 건축가 바니마스가 제안한 '별이 쏟아지는 길' 푸른 은하수를 구현한 것으로, 깊은 청색 조명을 바닥에 비추어 은하수가 펼쳐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백색 조명이 반짝이는 별을 모사했다.
▶관련기사 11편 김승교 기자

조사시스템 개선, 불법·불량제품 유통 원천 봉쇄

제품안전협회, 기존 세관 넘어 광양·군산 등 전국으로 영역 확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원천봉쇄한다.

기존 4개 세관 위주로 운영되는 수입 제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등 통관 절차부터 불법·불량제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관세청과 공조해 불법·불량제품

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적발하는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이후 매년 200만개 이상의 불법·불량제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용품에서만 2015년 753건(148만4389개), 2016년 570건(84만3985개)을 조기 단속하며 수입 경로를 차단했다.

이후 인천항만세관 외에도 인천공항, 평택, 부산으로 수입 제품 조사 영역을 넓혔고 올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 광양과 군산, 창원 등 지역별 세관을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 위한 시료구입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매년 2월과 8월 신학기 위주로 구입하던 어린이용품용품을 매월 구입으로 전환하고 시료 구입 수량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역 및 유통형태별로 시료 구입을 세분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많은 시료를 구입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한 '안전성조사 모바일 맵핑 시스템'을 활용, 수도권 외 시료와 온라인 시료 구입을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불법·불량제품 조사도 강화한다. 그동안 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속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1인, 1일, 3개 업체' 조사 원칙을 세우고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백용선 안전본부장은 “협업 시스템 운영 이후 불법·불량제품 적발률이 늘었고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혀왔던 조명기구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인력 보강을 통해 전국 주요 세관으

로 단속을 확대하는 등 조사 업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

2017 국제 전기전력전 12·13번

ISO 9001인증
(주)서울분전반

- 소량주문 환영
- 제작기일 3일
- 품질 제일주의

T) 02-2625-4828
F) 02-2625-4829

성실과 신뢰로 = 유진M&A

- 전기공사면허권 양도양수, 분할, 합병
-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 공사업 신규등록, 기업진단
- 통공사업, 소방공사업 문의 환영
- 일반, 전문건설업 신규 매매 정리 문의 환영

대표전화 : 02-555-5887
팩스 : 02-557-8003
(주)유진엠앤에이
www.umna.co.kr

에너지를 지키는 일 지구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생존문제로 연결되는 지금 에너지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를 넘어 지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슈퍼맨이 에너지는 SK E&S가 지킵니다.

E에너지 S슈퍼맨

코원에너지서비스 | 부산도시가스 | 영남에너지서비스 | 충청에너지서비스 | 전남도시가스 | 강원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